금호고속 새 노조 파업 치닫나

오늘 찬반투표 개표 … 64년 무분규 지속 관심

회사측 "복수 노조 불인정" … 강력대응 시사

1946년 창사 이래 64년간 무분규 역사를 이어온 금호고속이 파업 회오리에 직면했다.

18일 민주노총 광주본부에 따르면 민주노총 산하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금호고속지회는 지난 15일 오전 6시부터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지회는 19일 오전 10시 투표를 마감하고 11시께 투표결과와 함께 파업 돌입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지회 소속 조합원 345명 가운데 90% 가량이 투표를 마쳤다"며 "아직 개표를 하지 않았지만 파업 찬성 여론이 지배적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19일 진행되는 개표 결과와 이날 오후 2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리는 노사간 조정을 거친 뒤 파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들은 지난 4일 전남노동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했으며 조정기간이 끝나는 20일 0시부터는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금호고속은 1946년 설립 이래 이어온 64년간 무분규 전통이 깨진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현행 노동법은 복수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법원의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해놓은 상태다"며 새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회사 측 관계자는 "정부가 복수노조를 인정하지 않는데 회사가 어떻게 이를 인정하느냐"면서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민주노총 소속 노조의 파업에 대비해 지난 16일부터 직행노선에 대한 운행시간을 조정했다.

이 관계자는 "불법 파업을 참여하는 승무사원에게 승객의 안전을 맡길 수는 없다"며 "승객의 안전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행시간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금호고속 노조는 한국노총 산하 '금호산업(주) 고속사업지부 광주분회' 하나였지만, 지난 7월 일부 조합원들이 탈퇴해 민주노총 산하 '운수노조 버스본부 금호고속지회'를 설립, 2개의 노조가 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18일 오전 송기진 광주은행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본점 1층에서 열린 'KJB 역사전'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光銀 창립 42돌

1층 로비 '역사전' 개막

광주은행이 창립 42주년(20일)을 앞두고 18일 오전 본점 3층 대강당에서 송기진 행장 등 임직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42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송기진 광주은행장은 "광주은행이 괄목할 만한 발전을 보인 것은 지역민의 사랑과 격려 덕분"이라며 "차별화된 마케팅으로 2050년 세계 100대 은행 진입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 고객의 신뢰지수를 높이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본점 1층 로비에서 42년 역사를 사진으로 살펴보는 'KJB 역사전' 개막식 행사도 가졌다.

이번 전시에서는 고객에게 희망이 되는 광주은행, 고객을 위해 땀 흘리는 광주은행, 고객에게 사랑과 기쁨을 안겨 주는 광주은행이라는 주제로 각종 사진자료를 비롯해 다양한 화폐도 함께 선보였다. 전시는 다음달 29일까지 42일간 열린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車보험 진료수가 인하

정부가 자동차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자보수가) 인하를 추진키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8일 "현재 자보수가가 건강보험 수가(건보수가)보다 높아 상대적으로 교통사고 치료에 의료비가 더 들어가는 구조"라며 "자보수가를 낮추면 보험료 인하로 연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지역 금융기관 예금 큰폭 증가

9월 중 5457억↑

9월 중 광주·전남 지역 금융기관의 예금증가폭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발표한 '2010년 9월 중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9월 광주·전남 금융기관의 수신(예금액 기준)은 전달 479억 증가에서 5457억원 증가로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다.

특히 비은행권 금융기관의 추곡수매 자금 유입 등으로 상호금융 수신의 증가세(-1465억원→+3857억원)가 두드러졌다.

대출금 기준 여신은 비은행기관의 증가세가 지속됐으나 예금은행의 여신이 감소함에 따라 전달보다 증가폭(+5458→+1250억원)이 축소됐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 코스피지수	1,927.86 (+30.75)
▲ 코스닥지수	514.13 (+8.39)
▼ 금리 (국고채 3년)	3.33% (-0.02)
▼ 원·달러 환율	1,134.90원 (-10.0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

지역 상장사 번돈 절반 이자로

광주·전남 13개곳 중 광주신세계만 '무차입 경영'

광주·전남지역 상장사들은 1000원을 벌어 이자로 571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광주·전남지역 12월 결산법인 13개사를 대상으로 올 3분기 이자보상배율을 조사한 결과, 영업이익은 4130억원, 이자비용은 2385억원으로 이자보상배율이 1.73배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0.31배)보다 1.42배 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이자보상배율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것으로, 기업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수치가 클수록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분기 이자비용은 지난해 2263억원(회사별 평균 174억원)에서 2385억원(〃 183억원)으로 5.36%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이 704억원에서 4130억원으로 무려 486.74% 증가해 이자보상배율은 0.31배에서 1.73배로 높아졌다.

특히 영업이익 1000원 가운데 이자비용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3214원에 달했으나 올 3분기에는 571원으로 급격히 줄었다.

이자비용 지출없이 무차입 경영을 한 회사는 광주신세계가 유일했고, 이자보상배율이 높은 곳은 부국철강(161.57), KPX화인케미칼(48.70), 화천기공(25.3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올 3분기 이자보상배율이 전국 평균(4.95배) 이상인 회사는 부국철강, KPX화인케미칼, 화천기공, 디에스알제강 등이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올 대졸 초임 월 229만7천원

평균 5.2% 인상 … 지난해보다는 10만9천원↑

올해 임금협상이 타결된 기업의 평균 임금인상률이 지난해보다 크게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8일 전국 100인 이상 사업장 646곳을 조사한 결과 임금협상을 통해 결정된 올해 평균 임금인상률은 5.2%로 지난해 1.4%에 비해 3.8%포인트 높아졌다고 밝혔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100~300명 5.5%(작년 1.8%), 300~500명 4.8%(1.5%), 500~1000명 4.9%(1.1%), 대기업인 1000명 이상은 5.1%(0.6%) 선에서 타결됐다.

상여금을 포함한 올해 4년제 대졸 신입사원의 평균 초임급은 월 229만7000원으로 지난해(월 218만8000원)보다 10만9000원 많았다.

4년제 대졸 신입사원의 초임급은 100~300명인 기업이 202만1000원인 반면 1000명 이상 기업은 256만6000원으로 기업 규모와 정비례했다.

/연합뉴스

EG건설, 수완지구 중소형 568가구 공급

3.3㎡당 600만원 안팎

오늘 모델하우스 오픈

EG건설(대표이사 김용상)이 광주 수완지구에 중소형 아파트 568가구를 공급한다.

EG건설은 18일 광주시 광산구 수완택지지구 중앙공원 남쪽에 3.3㎡당 600만원 안팎의 실속형 중소형 아파트 'EG the 1' 568가구를 오는 25일부터 분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EG the 1'은 59㎡(24평) 276가구, 84㎡(33평) A형 243가구와 B형 49가구 등 총 568가구다. 특히 59㎡는 민영아파트로선 광주 최초로 선보이는 것이다.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14~20층 7개 동으로, 명품신도시 광주 수완지구의 중앙공원 남쪽에 자리하고 있다. 분양가는 3.3㎡당 600만원 안팎으로 내집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를 겨냥해 책정됐다.

수완지구 최초로 공간활용을 극대화한 공간설계도 눈에 띈다. 84㎡의 경우 방이 4개로 설계됐다.

분양 조건도 유리하다. 계약금을 5%로 낮추고 중도금도 무이자다. 또 전세대를 남향으로 배치했으며, 풍영정천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이 아파트는 커뮤니티시설이 특화됐다. GX룸(요가·에어로빅)·탁구장 등 체육시설존과 독서실·문고·과외방·공부방 등 교육특화존, 취미방·접견실·소모임방 등 맘스(주부특화)존, 경로당·주민회의실 등 복지시설존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조경대상을 수차례 수상한 노하우로 최우수 조경시설을 자랑하고 있다.

청약 일정은 1순위 25일, 2순위 26일, 3순위 29일이다. 발표는 다음달 3일에 이뤄진다.

모델하우스〈사진〉는 19일 광주시 서구 광천사거리 광천파출소 옆에 개관한다. 개관 당일 모델하우스 찾는 고객에게는 선착순으로 사은품을 증정한다.

문의 062-368-8833.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